

스टे디첼러 다키임기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사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술을 읽을 수 있는 불서는 없을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불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책은 드물다. 불서가 쉽게 대중화되지 못한 것도 그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얼마든지 좋은 불서를 찾을 수 있다. 이례(유마선원장) 법사가 지난 96년 펴낸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강좌> (여시아문도) 바로 그런 책이다. 눈여겨 살펴볼지 모르나 <금강경> 해설서쯤으로 보아 넘기기 십상이지만, 서문정도만 읽어봐도 '내책'으로 만들고픈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독자라면 자신 있게 이웃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금강경> 이라는 물론 불교이론의 체계를 잡는데 이만한 책이 없다고.



불교 기초 다져주는 금강경 신행 입문서

이 책의 서술 태도는 철저히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게다가 글쓴이가 재가불자수행도량 유마선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금강경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독자들의 거리를 좁혀준다. 사실 <금강경>은 지금까지 여러 석학들이 많은 역서를 내놓았다. 그러한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이 책은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글쓴이는 그 대표적 이유로 기존의 책들이 너무 선(禪)적으로만 해석된 점을 든다. 선사들의 <금강경> 해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법과는 다른 선사들 특유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불자들이 접근하기에 난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금강경>의 요체에서 벗어나 쉽게만 쓰여진 것은 아니다. <금강경>을 배대로 불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 차원에서 쓰여졌다.

이 책은 사전(의역)도 하고 있다. '부처님(佛)'의 의미 등 불교의 기초부터 확실한 분야까지 놓치지 않고 풀어낸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에 대한 내용이 4쪽에 이르는 것도 그 이유다. 한마디로 이 책은 어느 독자의 말처럼 '이 책을 읽으면 불교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게 해 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uddhist books of the week.

도서 안내: (02)737-0695

위기의 인류에 던지는 깨침의 메시지

'달라이 라마 지구의 희망을 말한다' 까리에르 지음

<달라이 라마 지구의 희망을 말한다> (통설러, 오정숙 옮김)는 교리나 수행 중심의 법문집도, 달라이 라마의 개인 사나 종교적 관점을 분석한 연구서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달라이 라마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은 대담집이다. 대담자는 영화 <양철북>의 시나리오를 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장클로드 까리에르.

달라이 라마가 꼽은 인류의 큰 문제는 '인구 증가'다. 그의 입장은 '비극'이라 말할 정도로 단호하다.

"시야를 넓혀 보면,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내일이면 인구 과잉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윤리의 문제도, 정신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아 제한은 널리 알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순간 지구상에 백백이 들어 서 있는 50억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려면, 수적 증가를 하루빨리 막아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는 그는 생명의

존재를 미리 막는 산아 제한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는 불교가 이런 장벽을 깨뜨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 생명 하나가 모든 삶을 위협한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이 라마의 입장은 현실적이다. 심지어 '경전도 세상과 시간의

인구문제 풀려면 산아제한 조치 필요

경전 시대맞게 재해석

흐름에 따라 필요하다면 바꾸어야 한다. '여성이기도 달라이 라마가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특히 경전에 대해 그는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이 세상에서 죽어라 경전 말씀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지요. 틀린 점이 밝혀지면 경전도 바꾸어야 합니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꼭 해야 할 일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



◇지난해 6월 다람살라를 방문한 우리나라 방한 준비위원회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달라이 라마.

서 지금까지 불교적으로 금지해온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문제는 오랜 시간과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인구 폭발과 생태 등 지구적 생명이 걸려 있는 생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모든 지도자, 과학자, 교육자들이 공동연대하여 힘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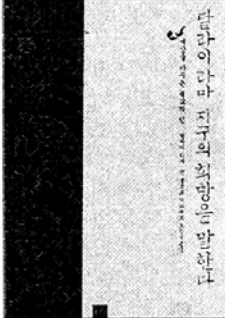
인류의 큰 흐름에 대해서 그는 낙관론을 편다. 하나로서의 인류라는 개념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처럼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양속이었던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사라진 점, 그리고 점차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책은 막연히 티베트 불교의 수장쯤으로 여겨지면 달라이 라마의 순수한 생각을 간접 체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덧붙여,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꼭 귀띔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책이 지닌 묘미의 상당 부분이 대담자의 숨씨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적절한 질문과 다양한 예시, 그리고 특색은 독자들을 달라이 라마의 생각 속으로 보다 가깝게 안내해 준다. 값 8천3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동서양을 아우르는 정신적 스승으로서 빛나는(?) 명명 생활을 하고 있는 티베트의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는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가 사는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새벽여는 화쟁사상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1



불교전기문화연구소(소장 최석환)가 지난 99년부터 원효 스님의 전기 설화 사상 업적 유적 등을 집성하고 있는 원효사상전집 시리즈 두 번째 권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 1>이 도서출판 불교춘추사에서 나왔다.

이 책은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등 모두 3장으로, '원효의 화쟁에 대하여(최유진)', '원효의 정토왕생 신앙의 교학적 근거(정태혁)', '새 천년을 새롭게 열어갈 화두, 원효사상(최창규)' 등 모두 20편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최석환(불교전기문화연구소장) 씨는 "5년 간 원효 관련 자료를 모으는 한편 국내외 원효 유적 1백여 곳을 현장 답사하여 가능한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최대한 복원하려 했다"며 "원효 스님이 중국에서 온 1천명을 제도했다는 화엄발 발견과 8백년 전에 필사한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지법요기> 등을 찾아낸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값 2만원.

원효사상전집 시리즈는 <원효어록>, <원효와 인물>, <원효유적답사> 등 전 7권으로 오는 2003년 완간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정직과 슬기로 엮은 행복 우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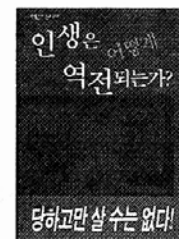
'인생은 어떻게 역전되는가' 이옥순 편역

한 성자가 갠지즈 강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본 다른 성자는 오랜 수행 끝에 얻은 자신의 초능력을 그 성자에게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강물 위로 가로질러 명상중인 성자에게 다가갔다.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보셨나요?" "그럼요, 강물 위로 걸어서서군요. 어디에서 배웠지요."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12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한 쪽 다리로 선 채 일주일 여섯을 굶으면서 노력한 결과죠." 명상하던 성자가 강 위를 가로질러 온 그를 올려다보

며 말했다. "그걸 배우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했나요. 단 2루피(60원)만 주면 언제나 배사공이 나뭇배로 강을 건너주는데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님을 일러주는 짙막한 인도우화 한권이다. <인생은 어떻게 역전되는가> (푸른솔, 이옥순 편역)는 고대부터 인도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우화들 가운데 현명함과 정직함으로 어수선한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만을 가려 뽑아 엮은 우화집이다. 실선에 들어가 30년을 고행하고 갠지즈 강가에서 명상하는



수행자들이 이 책의 주인공은 아니다. 복작거리는 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잔꾀를 부려야 하는 토끼와 생쥐들이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눈물겹게 투쟁(투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삶은 지극히 선량하다. 이처럼 우화들에는 누추한 일상 이면에 깔린 인도인의 지혜롭고 낙천적인 인생관이 짙게 배어 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깨달음은 어디서 오나

무심-나는 진이다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진인으로 평가받는 슈리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제자 두 명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탐구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도서출판 탐구사의 '아루나찰라 별서'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된 <무심-나는 진이다>는 슈리 락슈마나 스와미와 마르푸 슈리 사라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다.

스وام이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진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가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때 진아의 은총이 어떤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르침의 중심 주제이다.

사라다는 스와미의 법제자로 수행과정과 진아 체험의 이야기는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서 후학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진아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과 제자의 생애담과 함께 수행과 깨달음에 관한 그들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서점가-화제의 책 ①

평생, 일년, 열두 달,

삼백 예순 다섯 날, 날마다... 희망을 설계하십시오!

정겨운 12가족이 전국 서점에 소문없이 모였습니다.

5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운세이야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12명의 전문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화제의 책.



사랑하는 연인, 친구, 부모님께 365일 운세를 선물하세요.

취업·창업자에게, 나의 사업파트너는? 영원히 뜻을 함께할 동반자는 과연, 누구?

12가족 운세 이야기™

2001년 뱀띠 해 [辛巳年]

점집이나 전화상담, 인터넷의 운세내용과 얼마든지 비교해 보십시오. 문제는 적중률.....

이제, 최고의 적중률을 책으로 만나다!

오늘의 운세 시리즈①~⑫권 12가족 가운데 특별로 한 권씩 고르십시오. 1질(전 12권)을 구입하시면 2001년 한 해 동안 온 가족의 운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전12권 각권 값 6,000원

12가족이야기주 전화:02-542-2769 팩스:02-2266-2760 불교전문서점 공급처:법우당(02-994-4437~8)